

# KT 노동조합

KT TRADE UNION  
2007년 12월 28일(목)

24th

■ 발행인 : 지재식 ■ 편집인 : 최광수 ■ 주소 : 463-7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 대표전화 : 031-727-4820(편집국 4836) ■ 팩스 : 031-727-4815 ■ 홈페이지 : www.ktu.or.kr ■ 편집디자인 : 디자인여백(02-2279-9631)



## 해고자 전원 복직 합의 60여명의 해고자 전원 복직이 되는 쾌거

노동조합과 회사는 2007년 12월 26일 노사관계개선협의회를 열고, 남은 해고자 2명에 대하여 복직에 합의했다. 2007년 단체교섭 합의 사항 후속 조치로 열린 노사관계개선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도 인정한 해고자들을 사측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면서 빠른 시일 내 복직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해고자 복직문제는 민주화보상심의 이전부터 노사관계 개선의 차원에서 논의해왔다면서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기존 관례에 따라 복직시키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60여 명의 해고자가 전원 복직되는 쾌거를 이루게 됐으며 지재식위원장은 주요 공약사항인 직군직렬통폐합과 해고자 전원복직이 안전하게 이뤄졌다. 한편, 2007년 단체교섭에서 기합의된 1명은 2008년에 복직하고, 이번에 합의한 2명은 2009년에 복직할 예정이다.

### KT노동조합 2007년 이슈

## 단체교섭·IPTV·한미FTA 등 그야말로 '다사다난'

최근 치러진 대통령선거, 한미FTA, 비정규근제를 비롯 2007년은 굵직한 사건들이 많았다. 정말 다사다난이란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올 한해에 일어난 많은 일들은 우리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 또한 한미FTA 등은 여전히 진행형으로 남아있다. 그렇다면 KT노동조합에서 일어난 굵직한 사건들은 무엇이 있을까.

(관련기사2,3면)

먼저 손에 꼽히는 것이 바로 단체교섭일 것이다. 조합원들의 임금인상에 대한 기대가 어느해보다 많았고 노동조합 또한 책임감이 무거웠다. 또한 단체교섭을 통해 그룹노동조합의 공동투쟁을 준비하는 해이기도 했다. 2007년 들어 노동조합은 임금인상에 주력할 것임을 천명했고 그룹노동조합과 긴밀한 협조를 위해 공동투쟁분부를 설치했다. 또한 전국을 순회하면서 조합간부의 활동을 독려하고 조합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선전활동을 전개했다. 그 어느해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냈고 그 열기는 가을과 초겨울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성과로 인해 기본



급 2.6%인상, 기념품비 인상, 지원직 완전해소 등의 결과를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조합원의 고용문제와 직결되는 IPTV사업이다. 노동조합은 연초부터 IPTV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다각도의 활동을 벌여왔다. 방송계와 총들은 피할 수 없었지만 결국은 KT가 직접 IPTV를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안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와함께 우려했던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전면에 대두됐다. 이랜드 투쟁이 부각되었고 그것은 단지 이랜드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사회에서 끓고 썩어버린

자본가들의 노동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아직도 진행중인 이랜드 투쟁은 차기 이명박 정권의 노동인식에 대한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올해 3회를 맞은 노사대토론회는 정례화 돼가고 있다. 노사가 교섭의 자리에서 다하지 못한 경영전반의 문제, KT의 미래발전을 위한 문제 등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는 사실상 노사대토론회가 유일무이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문제점에 대한 공방뿐만 아니라 대안까지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 중앙상집 · 전국여성국장 김장김치 나누기 자원봉사

노동조합은 12월 11일 본사가 위치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솔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생활보호대상자(장애인 및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에 참여했다. 또한 김장김치에 필요한 경비 500만원을 전달했다.



한솔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성화스님은 "노동조합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과 자원봉사를 해주셔서 그 어느 해에 비해 김장이 수월했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김장담그기에 함께 참여한 전국지

방본부 여성국장과 중앙상무집행위원은 오랜만의 자원봉사가 힘에 겨운듯 연신 땀을 흘렸지만 표정만은 밝은 웃음이 배어 있었다. 또한 함께 자원봉사에 참여한 장

안사 신도회 회원들이 "KT노동조합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다음에도 또 자원봉사를 함께 하고 싶다."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중앙상집과 전국여성국장은 2,000여 포기의 김치를 담아 인근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가구에 전부 배달하고 나서야 일을 마칠 수 있었다. 한편 한솔종합사회복지관은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해 있어 평소 자원봉사와 후원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다.

## 승진 조합간부에 대해 강력히 조치키로

노동조합은 11월 29일 아침, 중앙상무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일부 조합간부(대의원포함)가 승진 전환직 포기 결의를 어기고 승진한 것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논의를 했다. 지재식위원장은 "9대 집행부가 지켜야 할 중요 원칙 중에 조합간부의 승진·전환직 포기가 있다."며 "노동조합의 조직을 위해서도 중요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중앙상무집행위원들도 "2006년 조합간부들은 재임기간에 그 직위를 걸고 일체의 승진 전환직을 하지 않겠다고

결의한 바 있는데도 이를 어기는 것은 노동조합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목과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노동조합은 사측에 조합간부를 승진시키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부 조합간부들로 인해 노동조합의 명예가 심대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내년 대의원대회에서 해당자의 제명을 포함한 강력한 징계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 KT노동조합 창립 26주년 기념 및 추모제 행사안내

KT노동조합 창립 26주년 기념행사 및 합동 추모제를 아래와 같이 거행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아래 -

1. 일시 : 2008.01.04(금), 11:00
2. 장소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화곡리 유토피아 추모관 (☎ 031-673-7904)
3. 참석대상 : 각 지방본부 상근간부 이상, 유가족 및 조합원 자율참석
4. 지참물 : 조합조기 착용 아울러, 각 지부에서는 행사 시간에 맞추어 지부사무실에서 부서장 중심으로 자주적 단결력 고취를 위한 조합창립기념행사 및 2008년도 사무식을 병행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본 정보통신연맹과 통신현황 정보교류



일본 정보통신연맹 조합간부들은 지난 11월 30일, 한국을 방문 KT노동조합과 통신현황에 대한 정보를 교류했다. KT노동조합은 노동조합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통신규제로 드림 ▲IPTV ▲하나로텔레콤 인수합병 등과 관련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IPTV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입법안이 확정됐다면 IPTV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역할을 하고 이에 따라 고용도 좀 더 안정화 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정보통신연맹은 ▲통신부문 노동자의 조직화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 등에 많은 관심을 표하기도 했다.

## KTF단체교섭 타결

KT그룹노동조합협의회 소속 노동조합 중 KTF가 가장 늦게 2007년 단체교섭을 타결했다. 지난 24일 KTF노사는 ▲기본급 2%인상 ▲격려금150만원 ▲복직기금 145억원 출연 ▲유아교육비 신설 등에 합의하고 가협정을 체결했다. 합의의 주요내용을 보면 평균임금에 전사성과급 실적금액을 반영하고 2008년 1/4분기에 성과배분제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수당산식에서도 휴일근로수당의 통상임금을 적용키로 했다. 이어 2년 이상 근무한 연봉에 대해서는 무기근로자로 간주기로 했다. 이들에게 복무 및 복리후생에 있어서 일반직에 준하여 적용키로 합의했다. 이와 더불어 기간직 또는 파견직 직무대체는 노동조합과 사전협의키로 해 비정규직 사용제한을 위한 규정도 마련하게 됐다. 이밖에 노동조합 재정자립과 관련해 2008년 상반기 논의키로 했다.

## 조합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황금돼지해라며 많은 사람들이 복을 기원했던 2007년이 저물어 갑니다. 조합원여러분께서는 올해 어떠한 복을 성취하셨는지요?

2008년은 무자년 쥐띠해입니다. 쥐띠는 풍요와 희망, 기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조합원여러분에게도 무자년에는 풍요와 희망 그리고 기회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KT노동조합 이슈 2007

## 노동자의 눈물로 써내려간 2007년

### 2007년 단체교섭



올해 단체교섭이 기본급 2.6%인상, 지원직 완전 해소, 복지기금 700억 출연, 기념품비 인상, 초등학교 교육보조비 지원 등에 합의하고 막을 내렸다.

2007년 단체교섭은 연초부터 어려운 투쟁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지재식위원장이 연초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임금인상에 주력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사측이 인건비 관련 발언만 나오면 허를 내두르는 상황에서 이는 한번 불어보겠다는 투쟁선언과 같은 것이었다. 이에 입체적인 전술을 수립하고 그룹노동조합과 유기적인 결합으로 투쟁의 불씨를 살려나갔다. 그 시작은 그룹노동조합 간부수련회였다. KT네트웍스의 D등급 대기발령이 바로 촉발되는 시점에서 공동투쟁의 필요성은 더욱 빛을 냈다. 수련회에서 간부들은 나나 할 것없이 KT네트웍스 노조를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후 노동조합은 중앙상무집행위원들이 직접 전국을 돌며 2007년 단체교섭의 중요성을 알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너무나 조용하던 조합원들도 노동조합을 응원하기 시작

했다. 그러던 중 사측의 발언들이 점점 도를 넘어가기 시작했다. “사무직은 무정량 근로자”, “현장의 25%는 무능력자” 등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노동조합은 더 이상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교섭중단을 선언했다. 곧바로 노란 몸자보를 두른 중앙상집들이 전국에 파견돼 단체행동의 수순을 밟아 나갔다. 이제 노동조합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단 하나 파업으로 돌파구를 열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측의 그동안의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임금인상 등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게 된 것이다.

### 필수공익사업장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라



KT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을 사실상 잃어버렸다. 지난 11월 13일 노동부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지정’ 등 노조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이로써 단결권, 단체행동권이 무력화 되어버렸다. 통신 분야 필수유지업무 범위는 ‘기간망과 가입자망 운영관리’ 가입자 고장신고 접수와 처리로 결정된 바, 이는 사업 대부분에 해당되어 단체행동권을 삭제하라는 뜻과 같다.

통신은 과거에 대체재가 없는 필수 수단이었으나, 현재 이동통신 확대보급 및 자유로운 번호이동제도 도입과 인터넷 발전으로 그 전통적 지위를 잃어가고 있다. 또한, 유선 전화 등 전체 135개 기간통신사업자가 경쟁하는 통신시장을 보더라도 소비자는 그만큼 폭 넓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번 개정안은 급변한 통신환경을 무시하고, 사업자의 수월한 노동자 통제를 법으로 보장하는 ‘노무관리 변종’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조합은 통신산업의 필수공익사업장 제외와 필수유지업무 폐지를 위해 향후에도 꾸준한 법개정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 IPTV 입법안미련



IPTV법안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가칭)’이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의 결을 거쳤다.

그동안 수많은 논쟁만으로 공전만을 거듭하던 IPTV법안은 사업권역과 기간통신사업자의 자회사 설립 등이 막판 쟁점이 됐다. 이에 노동조합은 자회사 분리를 절대 불가함을 천명하고 만약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사업권 포기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회와 정부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토론회에서도 조속한 IPTV의 시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IPTV법안은 전국면허와 지역면허를 동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자회사를 분리하지 않고서도 IPTV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시장점유율 제한을 통해 사업시행 1년동안은 점유율을 1/5로 제한하고 그 이후에는 1/3로 제한되었다. 또한 망동등 접근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통신망을 보유한 IPTV 사업자는 IPTV 사업을 위해 망 접근 및 이용을 요청하는 다른 기업에 보유했던 부속이나 영업 비밀의 보호 등 상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28일 현재 IPTV법안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며 본회의통과가 유력하다. IPTV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는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고시 제정에 착수하게 되며, 내년 3월말까지 이를 마무리해야 한다. 아직 하위법령의 준비가 필요하지만 2008년 상반기에 IPTV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IPTV법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회 방송통신특위는 내년 1월말부터 본격적인 방송·통신 융합기구법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총사퇴 결정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으로 대선평가, 당쇄신사업 추진

민주노동당 2기 최고위원회(대표 문성현)가 대선참패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할 것을 결정했다. 최고위원회는 “대선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책임을 지고자 한다.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해 당 혁신과 쇄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최고위원회가 총사퇴를 결정함에 따라 중앙위에 당직, 공직 선거일정 시기를 제출하고자한 안건은 폐기됐고 향후 정치일정, 대선 패배 수습방안, 당 혁신방안 등 모든 중요한 결정은 중앙위에서 구성될 비상대책위원회로 위임될 전망이다.

최고위는 사퇴결정은 12월 26일했으나 당규상 공식적인 사퇴는 중앙위가 열리는 29일 하기로 했다. 비상국면을 책임질 비대위를 구성할 권한이 중앙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지도부 공백상황을 피하기 위한 교육지책이다. 따라서 문대표는 29일 중앙위 개회를 선언한 후 임시의장을 뽑고 나서 의장자리에서 내려오게 된다.

비상대책위 구성을 위한 논의는 26일 열리는 확대간부위원회에서 본격논의됐다. 확대간부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상정 의원을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문래동 당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6시간 동안의 난상 토론 끝에 이같이 합의하고 김선동 사무총장이 심상정 의원을 만나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하기로 했다.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구성 인선에 대해 전권을 행사하며, 비대위의 역할에 대해서는 대선 평가, 당 쇄신 사업 추진, 총선 관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임시 당대회 소집 문제를 두고도 논란을 벌였다. 김광식 위원장은 “임시 당대회를 통해 비대위에게 전권을 넘겨 당 쇄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면서 “지금 당 안팎의 분위기를 봐도 당원들이 당 혁신 사업에 대해 결의를 하고 각오를 다질 수 있는 임시 당대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인숙 최고위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임시 당대회를 열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것은 원권이다. 비대위가 임시 당대회를 결의하면 밀어주겠다는 의지 정도는 확인하면 된다”면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오는 4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비대위가 많은 것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선동 사무총장도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임시 당대회가 필요하면 구성된 비대위가 최대한 빨리 추진하면 된다”면서 “이번 중앙위에서 구성된 비대위는 현 최고위의 권한이 자동 승계된다. 그 외 비대위 구성 후 혁신 사업을 위해 필요한 추가 조치가 있다면 추후 해당 중앙위와 당 대회를 열고 그 권한을 위임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확대 간부회의는 전국 16개 시도당 간부들이 전부 참석했다.

### 민주노동 10대 뉴스

- ① 민주노동 산별노조시대 개막
 

민주노동당이 2008년에 내거는 이슈 중 비중이 높은 것 중 하나가 산별교섭과의제다. 14만 금속노조의 첫 산별교섭에 이어 공공노조도 점점 전환 폭을 넓힐 조짐이며 사무금융연맹과 서비스연맹도 산별노조로서의 단계를 밟을 것으로 보여 내년 한해의 산별운동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② 비정규직 보호법시행...대량해고 이어져
 

비정규직 문제는 올 한해 역시 뜨거운 이슈다. 비정규법 시행 이후 기간제고용이 줄어든 대신 간접고용이 훨씬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서비스직의 80%가 비정규직이라는 보고도 나왔다.
- ③ 한미FTA저지투쟁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한미FTA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상반기 찬반양론 속에 정부와 국회, 노동계 등이 술렁였다. 결국 지난 4월 2일 미국과 한국정부는 타결에 다다랐다. 한미FTA미국본은 3월25일 ‘국민총궐기투쟁’을 진행하고 3월26일부터는 전국의 활동가 1천명 이상이 총집결해 단식농성투쟁을 진행했다.
- ④ 민주노동 7대 지도부 출범...전국현장대장으로
 

민주화 20년, 세계화 10년으로 일컬어지는 올해 2월 민주노동 7대 5기 이석행 집행부의 출범했다.

“낡은 것은 청산하고 구부러진 것은 바로 펴나가는 민주노동이 될 것”이라는 출범선언 이후 이석행 위원장은 현장대장정을 통해 현장과의 소통과 조직 복원운동에 나섰다.
- ⑤ 17대 대선투쟁 ‘노동자 계급투표 토대 다지자’
 

올해는 민주노동당이 2004년 최초 원내진입 이후 집권세력으로 인정을 받으나 마느냐 하는 첫 대선이었다. 무엇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원내교섭단체에 대한 가능성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대선이기도 했다. 이에 배타적지지를 밝힌 민주노동당이 이번 17대 대선에서 처음으로 ‘계급투표’를 독려함으로써 향후 총선에서도 자신감을 갖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 ⑥ 5.1세계노동절 첫 남북노동자대회 ‘우리는 하나다’
 

민주노동당은 올 초부터 3월까지 금강산통일기행사업을 대종적으로 전개해 총 3천5백여명 조합원들 금강산 방문을 성사시킴으로써 평화와 민족대단합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기여했다. 대종적 남북노동자연대협력사업 성과는 2.13합의를 이끌어내고 민족대단합대세를 굳혀나가는 데 디딤돌로 작용했으며 5.1절남북노동자통일대회 성사로 이어졌다.
- ⑦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 ‘경찰 원형봉쇄 뚫고’
 

전태일 열사 분신 37주기, 민주노동 창립 12돌을 맞은 2007년 11월11일, 노동자 민중들이 경찰병력 삼엄한 원천봉쇄를 뚫고 서울 한복판에 집결해 민중분노를 표출하며 대반격을 선포했다.

노태우 정권 이래 처음 전국노동자대회를 불허한 노무현 정권은 전국 450개 경찰봉쇄를 앞세워 전국에서 상경하는 참가자들을 무력 차단했다. 하지만 경찰 봉쇄를 뚫고 조직적 투쟁으로 대회를 성사시켰다.
- ⑧ 노동자 분신정국 “더이상 못살겠다”
 

4월1일, 택시노동자였던 허세욱 민주택시연맹 조합원이 “망국적 한미FTA 폐지하라”며 분신해 2주간 사투를 벌이다 사망했다. 택시노동자 전용제 조합원도 1월23일 “월급제 쟁취, 노동탄압 중단”을 외치며 일하던 회사 차고지에서 분신해 숨을 거뒀다. 이뿐만 아니다. 건설노조 인천전기원분과 정혜진 조합원, 금속노조 인천지부 폴트약기사회 이동호 조합원이 분신을 기도 사망했다.
- ⑨ 이주노동자 자주적 단결권 보장하라
 

고용허가제 시행 3년을 기념이라도 하듯 지난 8월부터는 경찰과 합동단속이라는 형태로 월 평균 4천명에 달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단속·추방하고 있다. 특히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해 이주노조 간부와 조합원 30여명을 집중단속, 추방했다. 정부는 11월27일 이주노조 지도부 3인을 표적단속 연행하고 20여일 뒤 강제추방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 ⑩ 한국타이어 노동자들 연쇄사망사태
 

‘18개월 새 15명 사망’. 한국타이어 노동자들 연쇄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노동안전문제가 전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사망자가 모두 15명에 이른다. 심근경색 7명, 폐암 2명, 식도암 1명, 간세포암 1명, 뇌수막종양 1명, 사고사 2명, 자살 1명이다. 특히 심근경색 사망자 수가 두드러져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 KT노동조합 이슈 2007

## 2008년은 새희망을 개척하자

### 한미FTA 체결 반대



통신분야의 경우 정부에서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적절한 차단을 하고, 또한 미국 통신시장의 안정적인 진출 여건을 마련하였다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협정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미국의 요구에 대해 애매한 표현으로 정리된 것이 많다.

이는 이후 해석 여하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상대국제소 대상에 대부분 해당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요구가 상당부분 관철되는 결과도 낳을 수 있기에 향후 협정 문구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및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쟁점을 살펴보면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지분제한 관련해서는 소유제한을 51% 이상 확대 또는 완전 개방 요구했으나 직접투자 제한은 현행 총액 49%를 유지하되, 국내에 설립법인을 통한 간접투자는 100%((단, 시장지배적사업자인 KT와 SKT는 제외)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기술표준 정책 관련해서는 정부의 기술표준정책 추진권한을 인정하되, 표준제정 시 외국사업자도 다양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되도록 했다.

이해 해저케이블 육양 설비 시설에 대한 미국 사업자들의 설치 및 접속 허용(관련 허가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결정하는 현행 유지)했다. IPTV 등 통방융합 관련해서는 국내 제도 미비에 따라 IPTV는 포괄적으로 미래유보(서비스 정의, 외국인 투자자한도, 내용 편성에 대한 규제, 상업적 주제 의무 등에 대한 권한이 포괄적으로 유보)한 상태이다.

### 노사대토론회

기존 노사관계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 시작한 노사대토론회가 3회를 맞았다. 올해 노사대토론회는 현안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조직개편의 문제점 ▲인력부족으로 연차반납, 자택대기 등 비정상적인 인력운용 ▲경영계약제 ▲IT서포터즈 ▲교육시스템 ▲근무환경 등의 빠른 해결을 주장했다. 토론회 이후 교육시스템 등의 문제는 바로 시정조치 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KT의 지배구조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노동조합이 과다 배당의 문제를 집중기문하며 직원들에게만 고통전가를 하는 경영진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에 사측은 주주들이 여유현금의 절반이상을 돌려달라고 요구한다면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50%를 환원해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배당축소시 투기자본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당정책에 소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외국인 주주의 압력행사를 인정한 부분으로 그동안 극구 부인해오던 태도와 견주어 볼 때 상당부분 노동조합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 노동조합은 회사의 부동산 개발 정책이 자산매각에 치우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매각으로 얻은 이익을 다시 개발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측은 부동산 개발을 하면서 가장 우선권을 부여하는 부분은 자산가치를 유지하면서 임대수익을 올리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개발한 것 외에는 임대전용 건물로 지어서 자산가치를 유지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조합은 KT가 국민기업으로서 회사의 이익이 되고 거시적인 차원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며 생색내는 봉사가 아니라 사회양극화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채용 확대 등의 구체적인 사업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 비정규직 투쟁

비정규직 문제는 올 한해 역시 뜨거운 이슈다. 17대 대선에서도 서민에게 가장 근접된 단어는 '비정규직'이다. 최대 이슈였던 일자리 만들기도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이 깊다.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올 한해는 최악의 시름을 안겨준 시기이다. 더군다나 7월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법'은 논란과 갈등의 전조곡이기도 했다.

비정규법 시행 이후 기간제고용이 줄어든 대신 간접고용이 훨씬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서비스직의 80%가 비정규직이라는 보고도 나왔다. 여성의 경우 20대 후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비정규직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러한 조건에서 비정규법 시행은 계약해지와 해고사태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랜드, 뉴코아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지난 6월30일부터 시작된 이랜드, 뉴코아 파업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 비정규노동자들인 코스콤도 현재 100일째 투쟁 중에 있다.

특히 이랜드, 뉴코아 사태는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 단일 안건으로 채택할 만큼 초유의 비정규직 문제로 부각됐다.

지난 11월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는 삼암동 이랜드 대장에서 개최할 만큼 민주노총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전 가맹조직들의 생계비 지원금 마련도 결의되는 등 이랜드, 뉴코아 사태는 비정규직 문제의 대표적인 의제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

특히 이랜드 박성수 회장의 130억 현금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기도 했다. 또 박성수 회장의 정기국회 국정감사 출석이 결정되면서 이랜드 사태는 새로운 분기점을 맞았지만 박 회장의 해외 출국과 불참으로 또 다른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 지부탐방 - 충북지방본부 제천지부

## 조합원 고충은 현장에서 직접 들어야 한다

삼한시대에 만들어진 의미지로 유명한 제천. 철도 등 교통의 요지이며, 시멘트 산업이 발전된 곳이기도 하다. 진눈깨비가 날리는 제천지부에서 김호경 지부장과 부서장들을 만났다. 김호경 지부장에 대한 부서장들의 한결 같은 표현은 바로 "현장파"이다. 이렇듯 곳은 날씨나 야근하는 조합원이 있을 때 김호

경 지부장이 불꽃 같은 봉지 하나 들고 갑자기 찾아온다고 한다. 새참이라도 먹으면서 일하라고 위로하면서도 그자리를 이용해 조합원들의 고충을 귀담아 듣는다고 한다. 김호경 지부장은 조합원들의 고충은 현장에서 듣는 것이 가장 생생하다고 말한다.



### ●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제천지부의 자랑이나 특색이 있다면.

제천이라는 도시가 온화하고 정이 많은 도시이다. 예전에는 상업도시 철도가 발달한 도시로 이름을 날렸는데 지금은 조금 정체되기도 했다. 우리 지부는 이러한 지역적 정서가 많이 반영되어 있어서 모두들 착하다. 가령 어느지부이나 한번은 있을 법한 다툼이 제천에서는 정말 보기 드물다. 회식도 협력업체 구분없이 다같이 한 가족처럼 한다. 그렇다보니 KT와 협력업체라는 구분이 없이 서로 융화가 잘된다.

#### 지부운영에 대한 소신이 있다면.

제천지부는 47명의 조합원이 있다. 작은 지부인 만큼 아침에 사무실만 한번씩 순회해도 작은 애경사까지 다 알 수 있다. 또한 사람이 적으니 복잡한 관계도 적다. 조합원들의 고충이 들리면 바로 지점장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점내에서 팀장들과는 절대 싸우지 않는다. 팀장들과 싸우다보면 고충해소보다는 오히려 조합에 좋지않은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



김호경 제천지부장

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전체 조합원이 지역사회에 이름도 알리고 조합원끼리 우의도 다지고 있다.

#### 올해 비중을 두었던 사업은 무엇이고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지부내 사업은 많지 않지만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각 실별 화합이다.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일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 보인다. 이를 풀 수 있는 길은 많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역지사지해야 한다. 그래서 올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반면, 올해 매우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건강검진이다. 조합원들의 평균연령이 40대가 넘어가다보니 건강에 위기상황이 닥쳐오기도 한다.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건강검진을 한다해도 병원이 낙후되어 정확한 진단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올해 우리지부에서 암환자가 2명이나 나와 사실 지부전체의 분위기가 우울하다. 건강검진 시 본인이 원할 경우 추가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큰 종합병원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문에 지점장과 직접 만나 일처리를 하고 있다. 또 조합원들에게 공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나름의 원칙이다.

####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활동은 무엇이 있는가.

1년에 한두번 버스투어를 한다. 포상금이나 자판기 수익금으로 투어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인원이 적은 것이 장점이 있다. 적은 인원이다 보니 모두 모여도 버스 한대면 가능하다. 또 연초에 제천시에서 진행되는 일출행사에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지역에서 하는 "정훈호 이뻐찾기" 등의 캠페인도 함께 하고 있



